

■ 2022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5)신촌초등학교

만지고 관찰하며 초록숲의 매력에 흠뻑

신촌초 5학년 학생들 16일 한라생태숲 체험 활동 나무·열매·이끼 등 가까이서 살피며 자연과 교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2022 숲길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16일 제주도 용강동 한라생태숲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체험 프로그램에는 신촌초등학교 5학년 학생 37명이 참여했으며 자생식물연구회 김명준 대표가 강사로 나서 '숲에서 듣는 나무 이야기'를 주제로 한라생태숲을 누비며 다양한 식생을 관찰했다.

구름이 가득한 날씨였지만 오랜만에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숲 체험에 나섰다.

김명준 강사가 떨어진 열매 하나를 주워 학생들에게 "열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씨요. 씨가 들어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김 강사는 "열매가 되기 전에는 꽃이 피었고 꽃이 지고 나니 열매가 맺힌 거야. 이 열매의 씨를 깨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씨들이 들어 있어."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주워 모양과 색깔을 살펴보았다.

조금 더 숲 안쪽으로 들어가자 전날 내린 비를 머금은 초록의 나무와 식물들이 학생들을 반겼다.

거대한 높이로 우뚝 서 있는 곰솔을 바라보며 다양한 방향으로 뻗은 가지와 줄기에 붙은 아이비, 고사리, 균류, 양치식물 등을 관찰했다.

김 강사는 학생들에게 "한 그루의 나무가 살아가는 데는 나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과 어우러져 살고 있음을 곰솔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숲길을 따라 걸으며 낙엽 사이에 자리 잡은 버섯을 관찰하고 투명한 줄을 타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거미도 천천히



지난 16일 제주도 한라생태숲에서 신촌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도영기자

살펴봤다.

키위와 모양과 맛이 비슷한 다래 열매를 주워 맛보기도 하고 돌을 둘러싼 이끼를 손으로 만져보며 감촉을 느껴보기도 했다.

이시훈 군은 "숲길을 걷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숲에 와서 자연을 가까이, 또 많이 볼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강오지훈 군은 "친구들과 숲을 걸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 즐거웠고

특히 다래 열매가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연진 담임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숲에서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며 "학교로 돌아가 숲에서 느낀 소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상문 쓰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코로나 확산세 주춤... 진정세 접어드나

최근 확진 200명대로 하락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도가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명으로 누적확진자는 33만1243명이다.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는 추석연휴 이후 지난 14일 540명으로 증가

세를 보이다가 17일 270명, 18일 223명으로 지난 11일 이후 다시 200명대로 내려왔다. 지난 18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1일 평균 확진자는 359명, 총 2512명으로 전주대비 1124명이 줄었다.

방역당국은 추석연휴 직후 진단 검사 수가 늘면서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서 결혼식 하객 집단식중독 의심 증세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와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A예식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와 보건소는 19일 환자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역학조사와 함께 검체를 확보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예식에 참석했던 일가 친척을 중심으로 20~30여명

게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의심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병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핑크몰리 배경으로 '인생샷' 19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핀 핑크몰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교차로 주변 드라이브 스루 교통사고 위험 높아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통안전 포럼' 관리 조례 제정·단속·시설 개선 등 제시

교차로 주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2022년도 제1차 제주 교통안전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심 교통의 난제인 승차 구매점(DT: Drive Through)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고창성 차장은 제주도내 승차 구매점 현황과 교통여건 및 통행 실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도내에는 제주도 18곳, 서귀포 6곳 등 총 24곳의 승차 구매점이 영업하고 있으며 대체로 평일보다 주말 통행량이 많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통행량이 집중돼 인근 도로에 차량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일도2동 승차 구매점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분석 모형(VISSIM)을 활용한 통행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승차 구매점 미운영

시 해당 도로의 통과 시간은 51.4초가 걸리는 반면 승차 구매점 운영 시에는 84.8초가 소요돼 33.4초가량 통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로 상층 발생 분석 프로그램 활용하면 교차·주돌·측면 충돌 가능성이 승차 구매점 운영 시 37.3% 증가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승차 구매점의 경우 차량 > 대기행렬의 도로 및 횡단보도 잠식 >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좌회전 > 진출입부 동선 체계 불량에 따른 차로 침범 등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승차 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해 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 의무화하는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또 정차 금지구간 주변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계도와 교통법규위반 주민 신고제 활성화 등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 내 승차 구매 대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도영기자

제주시 용담동 건물서 화재 연기흡입한 14명 병원 이송

제주시 용담1동 소재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서 14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48분쯤 제주도 용담1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유희주점에서 불이 났다

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36분 만인 이날 오후 8시 24분쯤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하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내부로 급격히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구조 결과 사망자는 없었지만, 연기 흡입으로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5회 제주익귀말축제

2022

2022. 09.24(토)~25(일)
개막식 9.24(토) 11:30

말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제주 마의 본향 익귀리 말축제입니다

남원읍 서성로 955-117

주최 | 익귀리마을회 · 문의 | 064-764-0185

Jeju 서귀포시 LetsRun 렛츠런파크